



# 지부 15년만에 집단교섭 결실

## 성원 · 오텍캐리어 · 위니아딤채 세 사업장과 첫 지역협약 체결



지난달 25일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현석)는 성원, 위니아딤채, 오텍캐리어 세 사업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기본협약(이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전남지부가 결성된 지 15년만의 첫 지역협약이다.

### 광주전남지부 기본협약의 의미

기본협약에는 △사용자는 광주전남지역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해 조합과 지부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금속노조와 지부의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는 조합 간부(상집간부 및 대의원)에 대해 8시간씩 연2회(또는 1박2일로 연1회) 유급 보장한다 등 집단교섭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담았다. 향후 더 많은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전남지부는 개별 사업장에서 다루기 어려운 지역의 공동 의제에 대해 사용자들과 체계를 갖춰 교섭할 수 있게 되었다.

### 기본협약 체결까지 어떠한가?

광주전남지부는 금속노조 창립보다 3년 늦은 2004년, 광주전남지역 금속산업 노동조합들이 금속노조로 전환해 결성됐다. 2013년 가장 먼저 캐리어에어컨과 상진미크론이 집단교섭에 참여해 집단교섭의 토대를 만들었다. 2013년 결성된 성원이 2016년부터 집단교섭에 합류했다. 또한 2017년 위니아딤채가 광주로 이전해 올해 지부 집단교섭에 참가하면서 협약 체결까지 함께했다. (위니아딤채는 충남지부에서 오랜기간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에 참가해온 사업장이다.)

한편에선 그간 경주지부에서 집단교섭을 진행해온 디에스시광주지회, 우영산업광주지회가 지부 집단교섭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또한 내년부터 지부 집단교섭에 참가하기로 합의한 금호에이치티도 보이지 않게 이번 협약 체결에 기여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지부 26개 지회 중 지부 집단교섭에 관련된 합의가 있는 지회는 7개이다. 내년엔 이번 기본협약을 토대로 더 많은 사업장이 지부 집단교섭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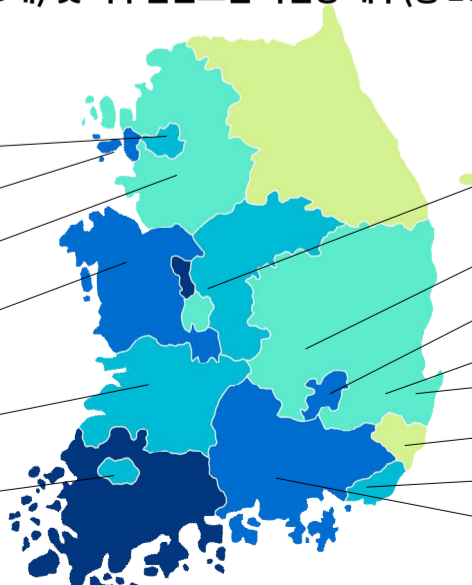
[기본협약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s://telegra.ph/kjnews-10-01>



금속노조 중앙교섭 사업장 개수(총 63개) 및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개수(총 100개, 다지역사업장은 교섭관장지부 기준)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2	9	서울지부
1	-	인천지부
5	9	경기지부
10	14	충남지부
3	4	전북지부
2	▲ 3	광주전남지부



대전충북지부	6	3
구미지부	-	-
대구지부	12	9
경주지부	9	9
포항지부	5	2
울산지부	7	7
부산양산지부	10	3
경남지부	12	7



**현대제철지회** 16, 17일 양일간 현대제철 5지회가 임투 승리를 위한 48시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16일 5지회 8천 조합원이 당진공장에 모인 모습.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 지난 8일 “임단투 승리! 단체협약 쟁취! 민주노조 사수!”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 등자보에 쓴 글씨가 보인다. “둘이 할 일 혼자 하니 힘들어 죽겠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네”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 최후통첩 15일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기자회견

순천과 당진의 양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그룹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15일 양 지회는 현대제철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는 29일 전 조합원 파업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가 “복리후생

과 시설이용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지금까지 현대제철은 아무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다.

한편, 지난달 20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소송자 161명은 2심에서도 승소해 현대제철 비정규직이 모두 불법파견임을 재확인했다.

번호	지회명   분회명	생산품	18년		19년		비고
			임협	단협	임협	단협	
1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	자동차부품			타결	타결	
2	광주지역금속	동양정산			타결		
		상진미크론			타결		
		제일산업			타결		2노조
		코비코스틸			신규	신규	10/13 분회 결성
3	금호에이치티	자동차램프			진행		
4	금호타이어	타이어	진행	진행	미진행		10/16 의견일치
5	금호타이어곡성						
6	금호타이어비정규직		진행	진행	미진행		미화업체가 지회 공통 단협 수용 거부
7	기광산업	자동차부품			타결		2노조
8	기아자동차광주비정규직	자동차			진행		교섭재개 요구
9	대한솔루션광주	자동차부품			타결	타결	
10	동일관광	통근버스운전			타결		
11	디에스시광주	자동차부품			타결	타결	
12	삼성전자서비스광주전남	제품수리			진행	진행	서비스센터 직접고용, 콜센터 자회사전환 후 신규협약 체결 위한 교섭
13	성원	스테인리스파이프			타결		
14	아성프라텍	자동차부품			진행		2노조
15	엠코	반도체패키징			타결	타결	
16	우영산업광주	자동차부품			타결		
17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타결		
18	전남서남지역	조선					
19	캐리어에어컨	에어컨			타결		
20	포스코 사내하청	성광			미진행	타결	2노조
		시오엠테크			미진행	타결	2노조
		포에이스			미진행	타결	2노조
		포스코엠텍			미진행	타결	2노조
		포트엘			진행	진행	
21	한국쓰리엠	마스크,테이프 등			진행	진행	교섭재개
22	현대모비스광주	자동차부품			타결	타결	
23	현대삼호중공업	조선			진행		
24	현대제철	냉연강판			진행		
25	현대제철비정규직				진행	*	
26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	단조 제품			진행	*	
-	포스코	철강			타결	타결	2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지난 2일 전 조합원 파업 출정식. 태풍 속에서도 현장을 행진하며 굳센 결의를 보여줬다.



**풍기산업노동조합 광주지부** 8월 말 풍기산업 광주공장에서 노조 간부가 해고됐다. 정규직 80여 명에 비정규직이 110여명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이다. 노조 간부가 비정규직들이 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회사가 보복으로 간부를 징계해고했다. 현재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하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예정이다.



# 금속노조 최초! 2030 수련회

“청년! 뜨겁다” 광주전남지부 청년 조합원 수련회 진행(8/31~9/1)

낯설지만 새로운 시도였다. 장년이 많은 금속노조에서 청년들이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전남지부 청년 조합원 수련회!

8월 말, 너무 뜨겁지도 않은 햇살과 너무 차가워지지 않은 바람이 2030을 반겼다. 잔잔했던 경남 산청 경호강의 물살은 금속의 청년을 만나니 거세어졌다.

한 배를 탄 2030청년의 이야기는 밤새 이어졌다. 17년 만에 신입사원이 된 20대 조합원의 이야기,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장시간 노동보다 중소기업장을 선택했던 30대 조합원의 이야기, 20대를 교대근무로 다 보내고 나니 너무 억울해

서 조합활동을 시작했다는 청년의 이야기, 10년 뒤에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청년의 이야기가 미리 준비한 PPT를 통해 하나씩 발표됐다. 절로 욱 나오게 일했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병원노동자 이야기에,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공무원 이야기까지 더해졌다. 2030은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턱걸이 2030’ 조합원이 건배를 제안했다. 평소에 말하지 못한 그들만의 이야기가 동틀 때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30이 개척할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가.



## 광주 평동산단 여섯번째 금속노조 가입 작지만 강한 코비코스틸분회

지난 13일 금속노조에 새 식구가 생겼다. 주인공은 광주지역금속지회 코비코스틸분회(분회장 박관우). 코비코스틸은 코비코(구 한국차량공업)의 자회사로 평동산단에서 철판을 레이저절단·절곡·용접 가공해 볼보트럭 적재함과 기아군수차량용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40대 중반 노동자가 욱을 먹으며 일했다. 자존감이 얼마나 상했을까? 늘 자리가 부족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코비코 정규직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은 80~90% 수준에서 오가다 어느새 사라졌다. 자회사라고 하지만 사장은 원청과 같다. 이익이 적은 물건을 떠맡은, 사실상 코비코의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전체 12명 중 9명이 노조가입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모든 노동자가 가입했다. 분노가 컸기 때문에 단결도 잘 됐다. 이제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다. 지켜봐주시고 연대해주시라!



**대한솔루션광주지회** 작년 12월 지회 결성 후 올해 5월 최초로 임단협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세부사항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투쟁중이다. 회사는 비정규직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노동(시업 전 강제조회)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회는 회사가 신규아이템 라인을 외주화한 것을 원상회복하라 요구중이다. 이에 대해 광주노동청에서 야간 고정 도급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기광산업지회** 사측의 노조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회사는 작년 6월 2공장 중심으로 지회가 결성되자, 다음달 1공장에 어용인 기업노조를 만들었다. 회사는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기업노조에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했다. 반면 지회엔 “생산량을 높여야 사무실을 주겠다”며 1년 가까이 금속노조를 차별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엔

신재요양 후 복귀한 2공장 조합원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1공장으로 보냈다. 그 결과 임금이 삭감됐다. 심지어 지난달엔 회사와 기업노조가 19년 임금협약을 아무도 모르게 체결했다. 이에 지회는 하지도 않은 직업훈련을 했다고 속여 국비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고,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투쟁하고 있다.

# ILO핵심협약 빌미 노조파괴법 추진 문재인 정부

## 국회 열리면 노동개악 도미노, 우리가 막아야 모두가 산다!

문재인 정부는 10월 초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전에, 노조법을 먼저 바꾸겠다는 거다. 그런데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왜 <노조파괴법>이 됐을까?

**노조에 족쇄를 채워달라는 <기업의 요구>가 개정안 사이사이에 들어있다.**

**대표 조항은 바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 3년 연장이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면 현장 내 피케팅, 집회는 물론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 감시도 곤란해진다. 파업 후 현장에 모이는 게 아니라 공터나 운동장을 찾아 배회하게 될 수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3년을 기다려야 한다. 교섭을 하고 싶어도 제때 할 수 없기에 단체교섭권이 침해된다.

위 두 가지 항목 모두 자유한국당이 먼저 입법 발의해놓은 내용에 들어있다. 철저히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조항이다. **기업에 주는 선물이자,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를 역행하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의 개정안은 기업의 요구를 더 노골적으로 반영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후 4주 이내만 쟁의행위 가능(기간 지나면 다시 찬반투표부터 진행)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 삭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없음)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조법 개정을 서둘러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배경엔 한-EU FTA의 무역분쟁절차가 있다.**

2011년 한-EU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등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한국은 1991년부터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었고 1998년부터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20년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던 중 복병을 만났다. 유럽연합과 FTA 체결 이후에도 7년간 비준을 미뤘던 한국정부에 대해, 유럽연합이 작년년부터 무역 압박 수단으로 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2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공식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서한에 이어, 올해 7월 무역 분쟁절차를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냈다.

사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한국에서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바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국제분쟁절

차를 피하려고 **▲해고자,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 같은 몇 가지만 형식적으로 손 보고, 나머지는 <기업에 선물로 주면서>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려 한다. 그러다 보면 기업에 주려는 선물의 크기는 자유한국당의 입법안처럼 더 커질 수도 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노조파괴법>이 탄생한다.

**게다가 유럽연합이 서한에서 지적한 한국 노조법의 기본 문제조차 개정안에 빠져있다.**

유럽연합은 ILO 결사의 자유 조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업자, 해고자만이 아니라 **화물노동자처럼 사용자에게 종속된 자영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의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 경우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정부는 이 부분을 누락시켰다. 또한 **노조설립 신고 반려 조항 등은 노조 설립이 신고제임에도 허가제처럼 운영되게 만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 독소 조항이다.** 그러나 이조차 개정안에서 빠져있다.

이처럼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최소한의 조항마저 빠진 개정안을 들고 기업에 선물을 주려 한다. 기업엔 선물, 노동자에게는 재앙이 될 **<노조파괴법>은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앞장서 투쟁해야 막을 수 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재벌체제 개혁!**

*전태일열사 정신키승*

# 2019 전국노동자대회

**11월 9일 (토) 15시 서울도심**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쟁취! 민중생존권 쟁취! 한반도 평화실현! **민중대회 · 11월 30일 (토) 서울도심**

